

## 대통령 석방된 날 여의도에 10만 운집 “자유민주주의 승리”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열려… 국회 앞 행진도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이하 기도회)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도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10만 명, 경찰 추산 1만 5천 명이 운집했다. 특별히 이날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와 관저로 복귀한 날이었다.

세이브코리아 준비위원장 홍호수 목사의 오픈링 멘트로 시작된 1부 예배는 먼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이제 우리에게 나라를 넘겨 줄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자유민주주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손 목사는 “대한민국이 건국된지 77년이 되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걸출한 지도자들로 인해 우리는 5천 년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누려 왔다”며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나라가 무너져 버릴 징조가 곳곳에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선전·선동·공갈·협박·공작을 날마다 일이고 있다.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시 이 나라는 한 달도 못되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이념으로 뭉친 사법부·헌법재판소 그리고 불법으로 벌어진 선관위를 보면 지금의 이 나라는 망조가 든 게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몰

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속히 복귀시켜서 정국을 안정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제2의 건국을 이뤄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시대를 누렸던 우리가,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아름답고 복된 나라를 이제들에게 넘기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세계로금란교회 주성민 목사와 캠퍼스칼리지크리에이터 염보연 목사의 메시지, 그안에진리교회 인크라이스트워십의 찬양과 송거리당당 박승걸 전도사가 인도한 합성기도,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김선규 목사의 축도로 1부 순서가 마무리됐다.

또 2부 우리들의 목소리 시간은 세이브코리아 이진수 대변인의 사회로, 내빈 소개 및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정치인으로는 국민의힘 윤상환·정장동혁 의원, 민경욱 전 의원 및 김행 전 대통령실 대변인 등이 연설했다.

◆기도가 자유민주주의의 싹일 것  
국민의힘 윤상환 의원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하나님의 보좌에 응답되어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라며 “예스더는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막기 위해 ‘죽으면 죽으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갔다. 그 부림절이 오는 3월 14일이다. 대통령에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8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주최 측 제공



기도회 이후 국회를 향한 행진이 진행됐다. ©주최 측 제공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다. 반드시 부림절의 역사,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 부탁드린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릴 것”이라고 전

했다.  
이 외에도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탄핵반대전국민연합 주요섭 목사,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이은혜 교수,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 개그맨 김영민, 최국, 한국의대 하태원 학생이 연단에 올랐다.



손현보 목사



전한길 강사

김은구 대표는 “트루스포럼의 20명이 최근 미국 CPAC(보수정치행동회의)에 참석하고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선각자들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 역사의”라며 “그러나 침묵하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다. 탄핵 찬성 사국선언을 진행한 장신대가 탄핵 반대를 진행하려는 학생들에게 학교 이름을 쓰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 빼면 시체다. 대한민국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다. 이 싸움은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각하하라”  
마지막 순서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강사가 ‘내란과 탄핵조작,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전 강사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너무 기빠서 눈물이 났다. 만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만든 주인공이다. 이것은 윤 대통령의 승리이기도 하며, 자유민주주의 승리”라고 했다.

전 강사는 “구속 취소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 탄핵 각하 및 기각이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전부터 저는 민주당이 입법과 사법을 장악했는데, 행정까지 장악할 경우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처럼 전체·독재주의로 전락할 것이라 말했다. 그렇기에 한미 동맹과 안보를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전 강사는 “국가가 무너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되고, 국민들도 갈등 없이 통합되는 방법이 각하”라며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통합되며, 헌법재판관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각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로 직무 복귀되어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고, 한덕수 총리도 복귀해서 경제도 살리며, 사회갈등도 통합되고, 윤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굳건해져서 공정과 상식과 법치가 되살아나고, 2030세대를 비롯한 미래 세대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도회 후 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해 행진했다. 지난주에는 국회를 둘러싸며 행진하였으며, 이번에는 대형 태극기를 앞세워 국회 앞 국회대로로 행진했다.

장요한 기자

## “민주당의 탄핵 남발, 대한민국 마비시키는 입법내란”

서울대 출신 기독교 원로들, ‘탄핵 반대’ 시국선언

서울대학교 기독교총동문회(대표 박흥일, 이하 서기동) 증경회장단이 최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훈 원장(전 숭실대학교학원장, 한국교회법연구위원장), 이승재 대표(미가힐링센터), 김중석 목사(통일운동본부 대표), 박흥일 대표(전 과기부 차관보, 호서대 초빙교수), 정영수 교수(충북대 교육학과),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살림나비 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김중석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된 이날 시국선언은 박흥일 대표의 경과보고

및 취지 발표가 있었고, 서기동 증경회장단을 대표해 정영수 교수가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서기동은 “반국가단체인 좌익세력은 급진적 사상으로 무장하고 대한민국의 가치체계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해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국가의 헌법적 가치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수호 차원의 불

가피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서기동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소추 남발은 국정마비를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한 29번의 탄핵 시도와 각종 위헌적 법률의 국회 통과를 말 그대로 대한민국 체제를 마비시키는 입법내란이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판단에 근거한 통치권에 근거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가치체계를 수호하는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계엄의 동기와 근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심리를 배척하고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하는 등 심각한 부정직성과 불공정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방어권은 침해당했고, 탄핵심판 절차는 불공정했다”고도 했다.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직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핵심 기능을 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



서기동 증경회장단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했다. (왼쪽부터) 김중석 목사, 이승재 대표, 김영한 박사, 김영훈 원장, 박흥일 대표, 정영수 교수 ©장요한 기자

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진행되어야 한다”며 “결국 민주주의의 적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다. 국가체제의 해체를 예방하고 구조적 한계와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법 제도적 개선이 절실

히 필요한 때”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행사는 질의응답, 박흥일 대표의 종합 및 인사말, 김영훈 원장의 감사 및 폐회기도 순서로 모두 마무리됐다.

장요한 기자

### 신길 AK푸르지오

(종공가미 24.07.31)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55-9번지 일원  
공급대상 : 지하 5층 ~ 지상 24층, 5개동 (공동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296세대 총 주차대수 482대

49m²B1

49m²A

#### 특별혜택

- 계약시 대행사 파격지원 · 3년전 분양가로 계약 가능 · 선착순 마감 임박
- 계약5개월 후 잔금 납부 · 각종옵션 무상제공 · 중도금 무이자

#### 주변아파트 매매시세

평당 4500~5000만원대  
5년차 H아파트 9억 5000만원 25년 01월 실거래

#### 신길 AK 푸르지오의 특장점

**다양한 편의시설:** 발코니 확장, 현관 중문, 팬트리 선반 등의 무상 시공과 콤포비냉장고, 세탁기, 하이라이트 3구 국밥, 전기 오븐, 욕실 비데 등 풀옵션 제공  
**편리한 교통망:** 영등포역, 신봉역, 신길역과 가까워 편리한 교통 환경 제공.  
GTX-B, 신안산선, 난곡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 요충지로 자리매김  
**생활 인프라:** 신길동 중심 상업시설 '사라가 쇼퍼' 재개발 사업지에 위치해 마트, 카페, 병원, 학원 등 다양한 상업시설과 인접  
**교육 환경:** 우신초, 도림초, 신길중학교, 대영고등학교 등이 도보 통학권 내 위치

#### 계약금

분양대금의 5% 1차계약금 (1000만원)  
2차계약금(분양대금의 5%중 1000만원을 제외한 금액)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현관 중문, 팬트리 선반 등의 무상 시공, 풀옵션 제공 (콤포비냉장고, 세탁기, 하이라이트 3구 국밥, 전기 오븐, 욕실 비데 등)

\*분양권전매가능 \*실거주 의무 없음 \*청약통장 주택보유여부무관 청약금(300만원)  
입금계좌 안내 농협 301-0294-7751-91 예금주 : 대한토지신탁(주)  
\*청약금 입금순으로 동호수 마감합니다. 미계약시 청약금 100% 환불됩니다.

### 문의 예약

## 02.871.9997

신길AK푸르지오 홍보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6, JS빌딩 2층

- 시행사 : 대한토지신탁(주)
- 시공사 : (주)대우건설
- 위탁사 :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주)